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6-0090

2026 봄 제44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도림고등학교
존중과 어울림으로 **함·지·인**을
일깨우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의 손으로 일궈낸 학교폭력 예방의 기적
- 도림고등학교 학생회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입학を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이 조금은 두렵고 떨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기대는
그 무엇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집

- 04 **우리들은 1학년**
삶과 세상을 연결 짓는
학교생활,
첫 시작을 함께 해요!

정보

- 10 신뢰로 시작하는 소통,
협력으로 완성되는 교육공동체
- 12 안전이 먼저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른 이용
- 14 안전한 체험학습, 든든한 지원!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으로
현장체험학습 걱정 덜어요

학교동보기

- 18 알고리즘의 시대,
연필 끝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자기 서사'
- 20 읽건쓰로 완성하는
송명 교육공동체의 기록
- 24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레는 만남,
용정 유초이음교육 현장 속으로!
- 26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연구회로
사서교사와 상담교사가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하다!
- 28 친구랑 선생님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동아리!
- 31 발자국 위에 새긴 글,
제주의 역사에 닿다
현장체험학습, 삶의 힘을 키우다

- 34 학생자치가 만들어진
학교폭력 예방 100%의 기적
- 38 꿈을 내리는 공간,
학교 카페 '소우재(消憂齋)'

캠페인

- 42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로
- 44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기념**
AI 시대, 다시
'읽기'와 '쓰기'로!

공감

- 46 **신학기 응원 만화**
시작하는 마음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권영남
기획 및 편집 김은진, 윤주영

편집위원 김미현, 김종완, 김진영, 박운재,
유철민, 이화은
사진 변상호, 이주한, 서주희, 이상훈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소식지 문의 032-420-8129
누리집 www.ice.go.kr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6-0090
디자인·인쇄 라우드디자인
(T.032-873-2626)



이진숙 인천송월초등학교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 주는 동시에, 낯선 생활에 대한 긴장과 걱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학습의 출발점이자,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시기로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며,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아이들의 세계는 점차 넓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은 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학부모·교사가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 가는 첫 출발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실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일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상 속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가정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1학년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살펴보기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배움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삶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주요내용	보조교과서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언어생활 습득, 한글교육 	국어활동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도형 이해하기 수학의 규칙성 찾기 덧셈, 뺄셈을 통해 생활에 적용하기 	수학익힘
통합 ① 학교 ② 사람들 ③ 우리나라 ④ 탐험 ⑤ 하루 ⑥ 약속 ⑦ 상상 ⑧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실천하기 지속적으로 삶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기 놀이를 통해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즐기기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읽기 책날개 입학식과 책 읽는 일상 만들기

학교에서는 입학식 날, 책을 통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책날개 입학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 주고 선물하는 이 활동은 학교가 학생들을 환영하는 공간임을 알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입학생에게 공통 도서를 제공하고, 이를 입학 초기 적응 주간과 3월 한 달 동안 학교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약속과 규칙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는 책 속의 문장은 큰 교육적 의미를 지닙니다.

가정에서도 책 읽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을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과정은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읽기를 개인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확장시키며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적응 입학 초기 적응활동 살펴보기

학교에서는 **입학 후 3월 한 달** 정도 **입학 초기 적응활동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응 활동 교재와 통합교과 '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보고, 직접 경험하며 하루의 생활 흐름을 익혀 갑니다.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로 인해 느끼던 낯섦은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교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학교 환경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 해야 할 일과 바른 생활 방법을 실제 활동을 통해 익히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합니다.



놀이와 노래, 협동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스스로 생각해 보고 약속으로 정해 보며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릅니다. 이와 함께 바르게 앉기, 집중하여 듣기 등 학습의 기초가 되는 습관을 익히고, 한글과 숫자 등 기초 학습도 단계적으로 다져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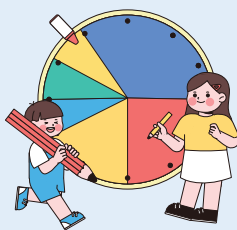
이러한 적응 활동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생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가정에서의 지도 알아보기

학교생활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과 약속 지키기,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갖기, 바람직한 관계 형성하기, 자율적인 생활 하기는 학교생활 전반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일관된 생활 지도와 격려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배움을 삶과 세상으로 확장하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 시간과 약속 지키기



- 1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하기
- 2 구체적인 시간 약속을 함께 정하고 지키는 연습하기
- 3 준비물 챙기기, 외출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계산해 보기
- 4 약속을 지켰을 때는 결과보다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 5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꾸짖기보다 이유를 함께 돌아보기

🌟 올바른 언어 습관 갖기



- 1 하루 중 있었던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시간 마련하기
- 2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 주는 태도 보여 주기
- 3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기
- 4 때와 장소, 상황에 알맞은 말 사용하기
- 5 바른 말과 예의 있는 표현을 보호자가 먼저 사용하며 본보기 보이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함께 첫 시작을 도와야 합니다. 좋은 학부모는 정해진 방향대로 자녀를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보다 자녀의 속도를 존중하며 곁에서 지지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일 것입니다. 자녀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학교의 안내와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일상 속에서 배움을 응원해 주실 때 학생은 첫 학교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가정의 믿음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성실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며 손을 맞잡고,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교육공동체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바람직한 관계 형성하기



- 1 가족 간 대화 속에서 차례 지키기와 경청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기
- 2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하기
- 3 사과와 고마움의 표현을 생활 속에서 익히기
- 4 놀이와 대화를 통해 양보, 배려, 협력의 경험 쌓기
- 5 친구를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습관 기르기

자율적인 생활하기



- 1 옷 입기, 가방 정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2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 자율적 결정 연습하기
- 3 숙제나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 기르기
- 4 실수했을 때 즉시 개입하기보다 다시 시도해 볼 시간 주기
- 5 스스로 한 일에 대해 결과와 관계없이 노력 자체를 인정해 주기

신뢰로 시작하는 소통, 협력으로 완성되는 교육공동체

조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학사



교육활동 보호, 왜 필요할까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운영됩니다.

예방 교육활동 침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 ❖ 교직원, 학생, 보호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실 확대 운영
- ❖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 및 관계 회복 지원
-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2026년에는 원스톱 상담교실 「교권을 부탁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행정, 법률 관련 교원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결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조기 지원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법률 및 관계 회복 중심의 맞춤형 학생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대응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 ❖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 학교민원 및 특이민원 대응
- ❖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확대
- ❖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확대

2026년에는 원스톱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기존 행정, 법률, 상담지원과 더불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갈등 중재 지원」을 운영하고, 학교 전담 변호사를 매칭하여 법률 상담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학교 변호사 ON(溫)」이 신설됩니다.

치유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 ❖ 교원 상담 및 치료 지원 내실화
- ❖ 마음건강을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확대 실시
- ❖ 집단 상담 등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원의 빠른 회복을 통한 교육 현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전문상담사와 함께 자연 속을 걸으며 외상 경험 회복을 촉진하는 「걸으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이-플라토」와 명상업을 활용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해 나갑니다.

기반 구축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 지역단위의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 교육활동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직통번호인 「1395」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안 신고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1개였던 교육활동보호 센터를 6개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민원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학교민원 대응 체제가 마련되며,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학교민원 SOS지원단」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발전하기 이전에 대화와 중재로 갈등 해결을 지원해 나갑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은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학교생활, 보호자는 학교와 협력하는 문화 형성, 교원은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보장받을 때 모두가 안전하고 협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올바른 이용

박현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장학사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일상 속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수칙을 안내합니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해요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어요

헬멧은 생명입니다
꼭 착용하세요!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위험한 이용 행동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하는 행위, 야간에 등화장치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신호를 무시하거나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통과하는 행위,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역시 자동차·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의 교통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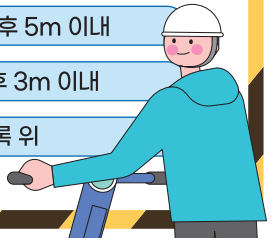
● 개인형 이동장치(PM)처벌규정 ●

- ✔ 무면허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 원
-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13만 원
- ✔ 승차정원 위반 Ⓜ 범칙금 4만 원
-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PM 주차 금지구역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 버스정류소 전·후 5m 이내
- 횡단보도 전·후 3m 이내
- 점자블록 위



학교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장비 착용 습관을 지도하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약속을 함께 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올바르게 이용하면 생활 속에서 유용한 이동수단이 되지만,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킬 때 인천의 등·하굣길과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안전한 체험학습, 든든한 지원!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으로 현장체험학습 걱정 덜어요

정인새, 최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주무관

현장체험학습을 앞둔 홍길동 선생님은 분주합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선물하는 동시에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전답사를 마쳤음에도 현장의 혼잡도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 예산 집행 관련 서류에 이르기까지 문구 하나하나가 문제 되지 않는지 고민하며 수차례 다듬고 수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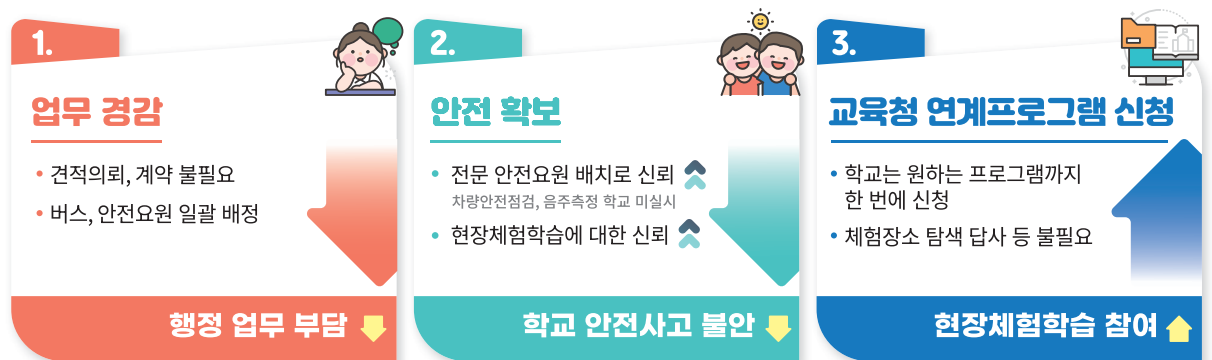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홍길동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25년 11월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련 교원과 학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학교 밖 지원 체계로 이관하는 방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시스템,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이 있습니다.



학교지원단 「체험e든든」 시스템 활용 시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사업 🚌 🚌

**학교 자체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지원 대상**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1~5학년) 연간 각 1회
- 지원 지역** 인천 관내 및 서울, 경기 지역
- 버스 지원** 학급당 1대 지원(40인승 이상 버스)
- 안전요원 지원** 학급(버스)당 1명 지원

체험e든든
홈페이지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 버스+안전요원** 유아교육진흥원, 남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북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동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서부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
- 버스** 세계시민교육과, 난정평화교육원
- 안전요원** 안전복지과, 시용합교육원, 학생교육원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이란?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은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 코스와 버스, 안전요원을 한 번에 신청·취합·결과 통보하는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에서 학교 자체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에 필요한 버스와 안전 요원을 일괄 배정받기 때문에 학교는 견적 의뢰, 계약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안전요원 배치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현장체험학습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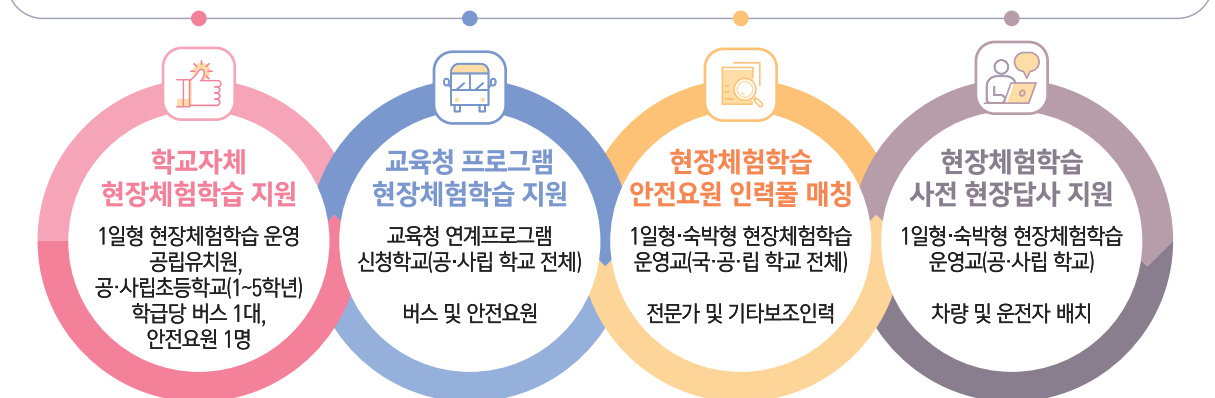
현장체험학습에서 큰 부담 중 하나는 학생 이동을 위한 차량 준비와 현장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입니다.

학교지원단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버스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의 준비 부담을 낮춰왔고 2026년에는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대상을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 1~5학년(특수학급 포함)으로 수혜 대상을 넓히고 학급당 1명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인천 관내·서울·경기 지원 지역 확대로 타 시도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차량과 안전 인력 지원이 결합된 지원으로 학교는 운영 준비에 쏠아야 할 시간을 줄이고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학습도 확대 운영됩니다. 시융합교육원, 난정평화교육원 등 10개 기관, 11개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가 체험학습을 단독으로 기획·운영하며 부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확장했습니다. 학교지원단은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공·사립 학교 전체)를 위해 버스와 안전요원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현장체험학습 지원 신청은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기존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희망 일정과 지원 항목(버스·안전요원)을 선택하면, 별도의 공문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차량번호, 운전자 정보, 안전요원 연락처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준비 과정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으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꼭 필요한 지원은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학교는 보다 안정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매칭 지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지원단은 안전요원 인력풀 운영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합니다.

안전요원 인력풀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14시간)을 이수하거나 인천소방본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문가와 3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교육을 받은 기타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2026년에는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교(국·공·사립 학교 전체)가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에서 안전요원을 신청하면 매칭과 계약서 생성 및 제공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개선됩니다. 학교는 필요에 맞는 안전 인력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체험학습 사전 현장답사 지원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답사가 필요하며 이 과정 또한 학교의 부담으로 다가

왔습니다.

학교지원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일형·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운영하는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학교, 사립 유치원 제외)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답사 시 차량 및 운전자 배치를 지원하여 답사지 이동 업무를 돕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제주·도서 제외) 하고 학급별 필요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하며, 답사 30일 전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에서 수시로 신청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안정성 확보와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무 건에 가까운 기간과 품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 만큼이라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은 현장체험학습이 학교의 부담이 아닌 학생에게 더 풍성한 배움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인천학교지원서비스 「체험e든든」 기반 지원 확대, 안정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운영, 현장체험학습 버스·안전요원 배치 및 사전 현장답사 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시대, 연필 끝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자기 서사'

시라는 거울 앞에서 '존재의 교육'을 고민하다

이은진 인천송빛초등학교 교사



아침 햇살이 스미는 교실,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 위에 연필을 굴립니다. 정해진 정답도, 거창한 화제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그려보거나, 어제 등굣길에 마주친 작은 꽃의 표정을 옮겨 담을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투박한 세 줄의 문장이 곁들여집니다. 시가 몇 초 만에 완벽한 명화를 그려내고 전문가 수준의 논문을 써 내려가는 시대에, 저는 왜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여주고 '수고로운 기록'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사적 전환점 위에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을 넘어 창작의 영역까지 평정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지식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는 인간이 해왔던 거의 모든 전문적인 일을 AI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교사인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빈틈'과 '비효율의 가치'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의 저서 《넥서스(Nexus)》에서 통찰했듯, 정보의 범람이 곧 지혜의 증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모든 답을 내놓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아침마다 마주하는 하얀 종이는 아이들에게 질문의 연습장이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참고문헌

- 《넥서스(Nexus)》 유발 하라리(2024), 김영사.
- 《시대에보: 경량문명의 탄생》 송길영(2025), 교보문고.
-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2021), 21세기북스.
- 《OECD Learning Compass 2030》 OECD(2019).

어떤 모양인가?”, “내가 발명한 로봇은 어떤 표정일까?”와 같은 질문에 답하며 아이들은 기계가 줄 수 없는 ‘의미’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사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하여 조금이라도 발전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시가 버튼 하나로 그려주는 그림은 매끈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이가 선 하나를 긋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과 손가락의 통증,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 터져 나오는 환희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과물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의미 있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유능감’에서 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서툰 드로잉과 글쓰기를 멈추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표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연필 끝이 무겁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억지로 ‘미술’이나 ‘문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관찰 임무를 주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거나, 때로는 디지털 도구를 빌려 기술과 협업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송길영 작가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에서 예언했듯, 표준화된 성공 방식이 사라진 시대일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서사(Narrative)를 가진 존재가 행복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명칭하고 느려 보일지라도, 자기만의 보폭으로 한 걸음씩 발전하는 과정을 스스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논리적인 AI 시대에 인간이 기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비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존재 들끼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빈틈이 있고 명칭한 구석도 있는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친구의 서툰 그림 설명을 들으며 “나도 그래!”라고 맞장구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닌 ‘연결된 존재’로서의

깊은 행복을 얻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실천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9년경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의 양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삶의 경로를 정하는 ‘학습 나침반(OECD Education 2030)’을 갖추게 돕는 설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목의 벽을 허문 통합 프로젝트 속에서 아이들은 AI 리터러시를 익히는 동시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신체성’과 ‘오감의 기억’을 복원해야 합니다. 흠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동료와 눈을 맞추고 자신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이야말로 시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존엄한 영토입니다.

토드 로즈가 《평균의 종말》에서 지적했듯, 표준화된 교육으로 아이들을 평균의 틀에 가두지 않고 각자의 ‘뜰쭉날쭉한 역량’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아침의 짧은 드로잉과 세 줄의 글쓰기는 아이들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도 자기라는 배의 키를 놓지 않도록 돕는 ‘존재의 훈련’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성취의 기쁨’과 ‘연대의 온기’라는 두 가지 보물을 모두 챙겨가길 바랍니다.

결국, 미래의 교실은 AI보다 똑똑해지는 법을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적인 서툰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금 느리고, 때로는 엉뚱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내고,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며 활짝 웃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리는 ‘비정확하지만 따뜻한 세상’이 제가 꿈꾸는 미래 교육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서툰 선과 문장 속에서 희망을 읽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이에서 함께 길을 찾는 ‘인생의 항해사’로, 아이들이 각자의 고유한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앞지르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읽건쓰로 완성하는 송명 교육공동체의 기록



1,196명 참여, 총 55권 출판... 송명 읽건쓰 저자 프로젝트

소현미 인천송명초등학교 교사



인천송명초등학교(교장 최은미)는 2025학년도 학생·학부모·교원이 모두 저자로 참여하는 '송명 읽건쓰 저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읽고 쓰는 배움이 학교와 가정의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교 학생들의 저자 활동을 시작으로 인천송명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학생 1,175명 전원이 참여하는 학생 저자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글쓰기·그림책 제작 활동을 통해 학급·개인 단위의 문집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34권의 학년(학급 또는 개인) 문집을 PDF 형태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문집은 학교 공동체와 공유되고 인천 읽건쓰 플랫폼에 탑재되었다.



또한 '책 읽어주는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5학년 학생 180여 명이 참여한 「영어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영어 온책읽기, 수준별 그림책 읽기, 리더스 씨어터 낭독 수업 등 한 해 동안 진행된 읽기·쓰기 중심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활용한 10쪽 분량의 영어 그림책을 직접 제작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학교 1층 현관에 전시되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낭독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저자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 송명초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림책 작가 활동으로 읽견쓰 저자 프로젝트를 확장 하였다. 학교는 「학부모 그림책 작가, 오늘부터 작가!」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 18 명과 교원 3명(교장 1명, 교감 2명)이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 그림책 제작과 출간 과정을 경험 하도록 지원했으며, 완성된 총 21권의 그림책은 실제 책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12월 19일(금) '송명 읽견쓰 학부모 그림책 출판 기념회'를 열어 작가로서의 성취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출간 작품 중 하나인 그림책 『바람이 머무는 자리』의 저자이자 3학년 8반 심규찬 학생의 어머니인 안지영 학부모 작가는 이번 활동에 대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은 아이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서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그 걸을 조용히 함께 걸어주는 어른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읽고 쓰는 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과정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명초등학교 최은미 교장은 그림책 『찌이아 신나라』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개선에서 학교 체육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으며, 박상희 교감은 그림책 『튼튼대장 ‘꾹이’가 톡!』에서 송명초등학교의 백만송이 국화 프로젝트와 연계한 생태전환 교육의 가치를 담아,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인천송명초등학교는 학생이 먼저 저자가 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참여하며 확장해 나가는 읽건쓰 교육을 통해 책 읽기와 쓰기가 학교와 가정의 일상 속 배움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송명 읽건쓰 저자 프로젝트」는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출발점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온 실천 사례로, 2026학년도에는 교사 읽건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읽고 쓰는 배움이 삶을 성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레는 만남, 용정 유초이음교육 현장 속으로!

박새날 인천용정초등학교 교사

인천용정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유초이음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교 관리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아이들과 호흡한 덕분에 더욱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활기찬 에너지로 하나 된 '용정 스포츠데이'

강당 입구에서 거대한 캐릭터 풍선 인형들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스포츠데이가 더욱 빛났던 이유는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기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땀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고도 열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주시는 교감선생님의 모습에 유치원 동생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대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등학교 형, 누나들의 손을 꼭 잡고 달리는 동생들과, 어린 동생들을 배려하며 속도를 맞추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나눔과 돌봄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소통의 장을 열어준 덕분에, 아이들은 '용정'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배우는 '생태전환 용정마트'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용정마트'는 단순한 시장 놀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생태전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실물 경제의 첫걸음: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물건을 고르고, 미리 준비한 화폐로 계산해 보며 살아있는 경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자원 순환의 가치 발견: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되는 과정을 보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학교 문턱을 낮추는 이음의 시간: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교실과 복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마트 장보기를 즐겼고, 이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즐거움 탐험이 가득한 친밀한 공간'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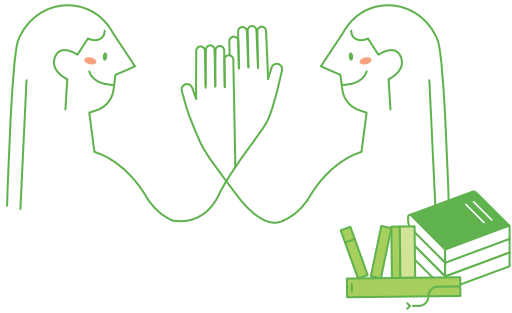


산타가 된 교장선생님, 온기를 나누는 '크리스마스 행사'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 이벤트에서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붉은 옷을 입고 인자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변신하셨습니다.

산타가 된 교장선생님의 깜짝 등장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교장선생님께서 다정하게 건네주신 선물 보따리는 아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마스크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 시간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앞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학교가 '사랑과 다정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용정 교육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용(협력) 수업 연구회로 사서교사와 상담교사가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하다!

김리하 강화여자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요?”

최근 5년 동안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견할 때마다 고민했다. 책과 영상 자료 그리고 노래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닿는 도서관 수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의 고민은 상담교사와 함께하며 실마리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답을 얻었다. ‘감정 교육’의 전문가인 상담교사와 ‘독서교육’의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협력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린 2024년 고시의 교육과정으로 ‘매체통합독서를 통한 감정탐구’라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워크북도 제작했다.

“비교수교과인 우리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개발한 교육 과정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 교육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연구회를 모집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사서교사와 상담교사의 협력 모델을 제안한 우리는 당당히 연구회로 선정되었고, 학교에서도 주제 선택 수업 시수를 받아서 18차시씩 총 2회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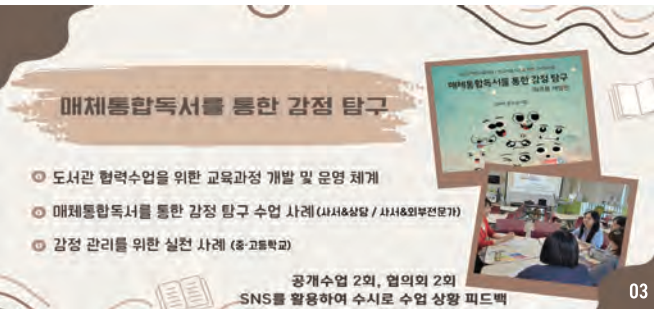


01

- 01 그림책 활용수업에 필요한 자료 탐구 및 현장 견학
- 02 '매체통합독서를 통한 감정 탐구' 교육과정 설명회
- 03 도서관 협력수업의 전체적인 윤곽
- 04 감정 프로젝트 중 '소중한 나의 감정을 품은 동그라미 이야기책' 만들기 협력수업
- 05 연구회 대표로 발표하는 전국 행사



02



03

책, 영화, 노래를 활용한 감정 탐구와 분석적 독서 활동, 감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모두가 함께하는 감정 큐레이션 활동,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감정을 품은 동그라미 이야기책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 수업이었다.



04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 참여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 우리의 수업에 참여한 사례로 수상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육부 주최의 2025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한마당에서는 우리 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 활동을 전국 교사 및 교육 전문직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05

우리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지식센터 직무연수 강사가 되어 매체통합독서를 통한 감정 탐구 교육과정과 수업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300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도 실시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자비로 감정 탐구나 매체통합독서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체험 장소를 견학하고, 수시로 만나서 수업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기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며 삶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발걸음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상담교사의 콜라보로 시작되었고 계속될 것이다.

친구랑 선생님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동아리!

정문식 인천고잔중학교 교사



사제동행(師弟同行),

말 그대로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간다는 뜻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삶과 진로, 인성 등을 교류하는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2024년 “함께 해요. 어깨동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천고잔중학교의 사제동행동아리는 2025년에도 2년째 활동을 이어가며,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꿈과 끼를 펼치는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제동행동아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삭막해진 학교 현장을 직면하면서부터다. 어떻게 하면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섬에서 근무하며 학생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섬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은 현재 학교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사제동행 동아리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동아리 첫 모임날,

“사제동행동아리는 선생님이 이끄는 것이 아닌,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일, 선생님이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일 중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최대한 해보려 합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논의하여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사제동행하였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는 배움 동행

첫 번째 배움 동행의 주제는 “학교폭력예방”이었다. 해당 주제는 교내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지 학생들과 고민하여 결정하였다. 활동의 하나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 ‘학교폭력은 나쁜 것’ 정도로만 알고 있던 학생들은 직접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선생님, 학교



- 01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02 경찰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순찰
- 03 저작권 교육
- 04 저작권 보드게임
- 05 요리 원데이 클래스 수강
- 06 영화 관람
- 07 연극 관람

폭력은 학교 외에 상가, 동네에서도 일어나는데, 경찰과 함께 캠페인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진로 희망이 경찰인 학생의 제안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경찰관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순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디자이너가 꿈인 학생의 제안으로 학교폭력예방 인생네트 부스 운영 등 학생들의 꿈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배움 동행의 주제는 '저작권'이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자료를 문제의식 없이 활용하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함께 저작권을 공부하고자 저작권 협회의 저작권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다. 7차시에 걸쳐 저작권의 종류, 침해 사례, 관련 법률 등을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보드게임, 포스터 제작하기 등을 통해 체험해 보면서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였다.

“어둠의 사이트(무로지만 불법인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저작권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정식 사이트에서 결제한 뒤에 보게 되었어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즐기는 꿈끼 동행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는 '요리하기'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 실습 환경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간단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 도구 없이도 요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빙수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공통 재료는 교사가 준비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빙수 재료를 추가로 준비해 왔다. 어떤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넣고, 또 다른 학생은 망고를 가져와 망고 빙수를 만들었다. 빙수를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유독 무더웠던 2025년 여름을 보냈다. 학생들이 요리 활동에 큰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겨울에는 요리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하였다. 학교 인근 요리 학원과 협의하여 햄버거를 만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요리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햄버거 파티 반죽부터 채소 손질까지 스스로 해나가면서 맛있는 햄버거를 완성하였다. 서투른 칼질로 채소를 써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도, 불 조절을 잘못해 햄버거 빵을 살짝 태우기도 하였지만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성취감에 학생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였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유튜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영화관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을 가본 적이 거의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저작권 교육과 연계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영화관 단체 관람을 진행하였다. 한 편의 영화를 찍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역할과 직업을 알아보고, 영화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을 미리 학습한 뒤 관람하였다. 첫 번째 영화 관람에서는 조용히 영화만 보던 학생들이, 영화를 보며 먹는 팝콘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 팝콘을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려준 것 같아 뿌듯했다. 영화 관람을 몇 차례 하자 학생 중 한 명이 “선생님 영화도 좋지만, 연극도 보고 싶어요!”라고 제안해 왔다. 뮤지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그 학생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자신의 연기에 참고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생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민 끝에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하는 작품 중 하나인 '오즈의 의류 보관함'을 함께 보았다. 소설이 원작인 이 작품은 입시에 실패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주인공이 밤의 세계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의류 수거함 속 헌 옷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흠뻑 작품에 빠져든 학생들은 연극이 끝난 뒤, 감동적이면서도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작품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제동행동아리를 하며 수업 시간에는 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요리를 좋아하는 학생, 경찰이 꿈인 학생,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학생까지. 학생들은 예상보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존재였다. 사제동행동아리라는 기회 속에서 학생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갈 수 있길 바란다.

발자국 위에 새긴 글 제주의 역사에 닿다

현장체험학습, 삶의 힘을 키우다

양현희 신흥중학교 교사

질풍노도 시기의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9월, 제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게 되었다. 놀러간다고만 생각하던 남자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주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의 특강이었다. 제주 체험학습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특강을 직접 들려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조금은 더 진지한 태도로 이 여정을 바라보게 되었다.

“제주는 아름답지만,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제주공항에도 비극이 서려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 그 울림은 곧 읽기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강을 통해 제주의 아픔을 처음 듣게 된 아이들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전환기 기간에 제주의 4.3사건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남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도서 여섯 권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읽고, 궁금한 점을 함께 논의하며 제주를 탐색했다. 독서 후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하여,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책 속 역사에서 현실의 기억으로,
학생들이 마주한
제주 4.3 희생자들의 이름

특강, 독서, 골든벨 퀴즈로 이어진 배움의 시간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픈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자료집도 함께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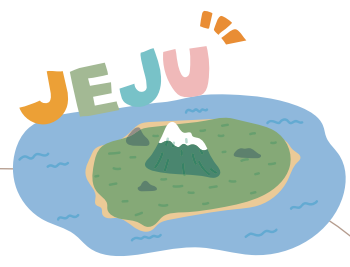
드디어 9월 1일 김포를 출발한 체험학습의 여정은 제주의 풍경과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틈틈이 진실을 찾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스러져간 영혼들이 떠도는 '첫알오름예비검속 추모비'를 찾아 그 자리에 서 보았고, 제주 4.3 평화 기념관을 둘러 4.3의 역사와 전개 과정을 공부했다. 그리고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백비 앞에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에 조심스레 마음을 기울였다.

“여기는 다 같은 날에 같은 마을에서 희생되었어.”

책을 통해 수만 명의 희생자를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눈으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울림이 달랐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걸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의 바람과 역사를 품고, 한 뼘 더 성장한 뒤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경험, 4.3에 관해 알게 된 진실을 글로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제주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성찰하였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충실한 교육의 여정이었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선 확장된 교실이었다. 더불어 함께 '삶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예	전	에	는	제	주	도	에	서	제	주	를	민	들	이	억	을	하	게	학	습
한	사	건	이	라	고	말	고	있	었	는	데	외	억	을	한	기	,		은	
학	습	이	일	어	는	원	지	물	려	다	.	근	데	수	학	여	행	가	기	
전	,	독	서	은	강	연	으로	배	경	지	식	이	생	겨	고	수	학	여		
행	에	서	관	견	장	소	를	가	서	모	형	이	나	구	르	불	갈	은	길	
적	적	보	니	이	사	건	이	얼	마	나	심	각	하	고	잔	혹	한	지		
알	개	혀	왔	고	마	음	아	프	게	느	겨	졌	다	.						

학생자치가 만들어낸 학교폭력 예방 100%의 기적

최동석 도림고등학교 교사



‘학교폭력’이라는 폭풍 속의 개미가 되다.

2025년 4월, 개학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수의 학교 폭력 접수와 학부모 민원, 소송, 동료 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휴직원’을 출력해 날짜만을 비워 놓고 책상 바로 앞에 붙여 놓았다. 민원 상담을 할 때마다 부적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무너지기 직전에 학생자치회 회장과 학생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학교폭력이라는 폭풍우 속의 개미와 같은 나날 속에서 ‘학생’이라는 희망을 본 순간이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학교폭력 예방의 씨앗을 심다.

학교폭력 사안이 연이어 접수되며 사안 처리와 민원 담당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교사 중심의 예방을 도저히 이어 갈 수 없었다. 그때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을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규약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학급 문화 책임규약 회의

- 브레인스토밍으로 의견수렴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생 회의를 통해 학급 문화 책임규약 완성



학교문화 책임규약 투표

- 학급문화 책임규약 선정
- 학년별 스티커 투표
- 학생 의견 수렴(포스트 잇)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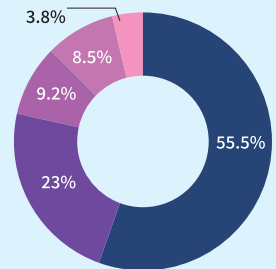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갤러리워크
-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약
-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 학교문화 책임규약 온라인 게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각 학급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들이 모여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후 교육공동체의 투표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 공동의 책임규약으로 완성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정한 규칙은 자연스러운 공감과 참여를 이끌었고, 그 이후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책임규약을 통한 학생들의 성공 경험은 학생들을 방관자에서 강력한 방어자로 만들기 시작했고, 학생 중심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도립고 학교문화 책임규약

- 규칙 준수
- 상호 예절
- 일상 예절
- 환경 미화
- 공동체 생활



학생 자치회 주관 회의

- 학생 자치회 중심 운영 회의
- 버스킹을 위한 문제 제작
- 학생 주도 역할 분담



교과 주제 문제 버스킹

- 학교폭력, 한국어, 수학 주제
- 1~3단계 선택 후 문제 풀이
- 정답 학생에게 상품 지급



우리가 바라는 학교 자유 발언

- 우리가 바라는 학교를 주제로 자유 발언
-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은 운영에 반영



'학생 중심 활동'으로 음지에 있던 학교폭력이 양지로 끌려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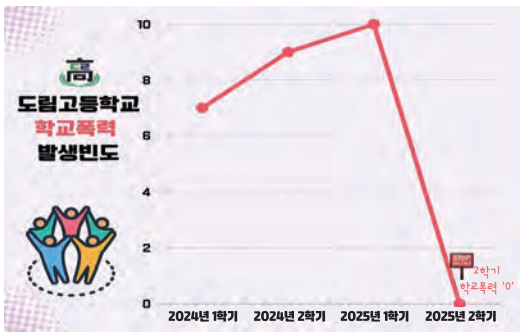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 조정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교사는 학생들의 고민과 선택을 존중하며 뒤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아이디어와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가디언즈 오브 더 도림, 책임규약을 잘 준수한 학급 전체를 시상하는 모범학급 리워즈,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도리미어 리그, 리더십 캠프, 학교폭력 예방 버스킹 등의 활동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변화는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오지 않는다. 교육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약속이 모이자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자라나던 학교폭력이 양지로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이라는 햇빛이 비춰지자 거짓말처럼 2학기 학교폭력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학생 제작
학폭 예방 영상 QR



학생자치가 만들어 낸 '성공경험'이 학교 문화를 바꾸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정착되었다고 해도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라나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완전히 없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굽기 전에 학생자치회를 비롯한 강력한 '방어자'들의 노력과 학생·학부모 상담이 이어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2학기 학교폭력 '0'건을 달성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공경험으로 강하게 각인될 수 있었다.



학생들의 모든 노력과 교육공동체의 성공경험은 「2025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이어졌고, 학생자치 중심의 예방 활동과 학교문화 변화의 성과는 「2025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을 통해 그 교육적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학교폭력 예방의 주역이 된 학생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여하며 "학교폭력 예방의 답은 결국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법령이 강화되고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은 대학 진학에 제재를 받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폭력은 학생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상처와 가해 학생의 과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가 만들어 낸 학교폭력 예방의 변화가 모든 학교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꿈을 내리는 공간, 학교 카페 '소우재(消憂齋)'

특수학급의 벽을 허물고 학교의 거실이 되다

백승진 (전)부평공업고등학교 교사

“꼬마 바리스타들 앞에서 이미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는 다 쳐 놓은 상태였다. 어찌 뒤로 물러설까...”

특수학급 아이들에게 세상은 늘 '교실 안'이라는 좁은 울타리였다.


2025년 우리는 그 좁은 담장을 허물기로 했다. 교내 유휴 공간이 교과교실제 사업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만나 학교 카페 '소우재(消憂齋)'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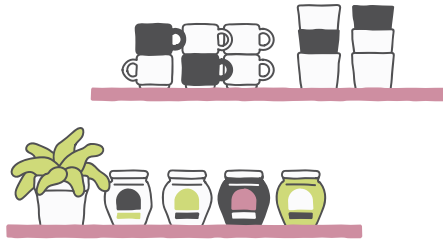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의 소우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카페가 아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심포가 되는 우리 학교의 소중한 거실이다.

학교 카페 운영의

학
가
치

- 통합교육 실천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
- 직업기능 습득
- 실무경험을 통한 자립 능력 향상
- 심리적 안정
- 학교 구성원 모두의 휴식과 치유 공간
- 소통과 연결
- 커피를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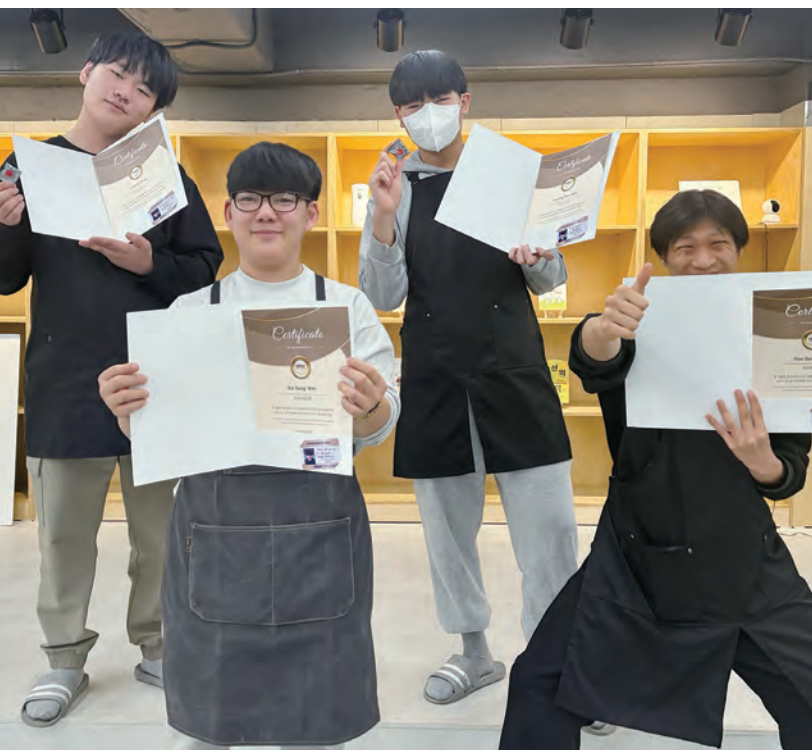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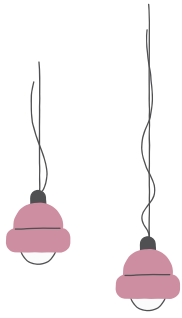
꼬마 바리스타들의 당당한 홀로서기

‘교실 안’ 이론을 넘어 실제 카페와 동일한 환경에서 바리스타 실습과 제과제빵 수업이 이어졌다.

서툰 손길로 원두를 고르고 우유 거품을 내며, 아이들은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기능경진대회 입상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이제 아이들은 당당하게 주문을 받고 미소를 건넨다. 소우재에서 내린 것은 원두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이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학교의 거실'

소우재가 문을 열면 적막했던 1층 복도는 활기로 가득 찬다. 담임 선생님께 받은 쿠폰 한 장을 소중히 들고 찾아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소우재는 학부모님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토론장, 그리고 전교생의 축제 공간으로 활용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며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른다.

함께 커피 향을 맡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차별'은 사라지고 '함께'라는 가치만 남았다.





공간이 주는 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지난 1년, 소우재라는 작은 공간이 불러온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아이들은 직업인으로서의 꿈을 찾았고, 학교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발견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다.

나는 이제 정든 이곳을 떠나지만 소우재의 따뜻한 커피머신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아이들의 땀방울과 정성이 녹아있는 이 공간이 오래도록 우리 학교의 거실이 되어 주길 바란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두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로**

하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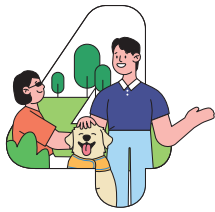




1.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다름'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과 삶의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나와 같다'는 기준을 세워 두고, 그 틀을 벗어나는 차이를 '틀림'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서로의 차이를 배제의 이유가 아닌 다양성의 가치로 이해하는 시각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2. 왜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할까요?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장애 친구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웃으며 성장하는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먼저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법이라는 이름의 약속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주요 기관은 연 1회 이상, 학생은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4. 마음을 여는 교육 자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미 마련된 다양한 길잡이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대한민국 1교시(교육부·KBS한국방송·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에 공개되는 장애이해교육 영상
-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공감 자료(누리집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콘텐츠(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뽀꼬 아 뽀꼬' 음악회)
-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교재·교육자료
- ◆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5. 함께 걸어나는 내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작은 이해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설 용기가 되고, 우리 학교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캠페인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기념
캠페인

AI 시대, 다시 '읽기'와 '쓰기'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 활용 수업과
독서 교육 실천 사례

구아미 인천도림초등학교 사서교사



02

AI 시대, 왜 다시 '독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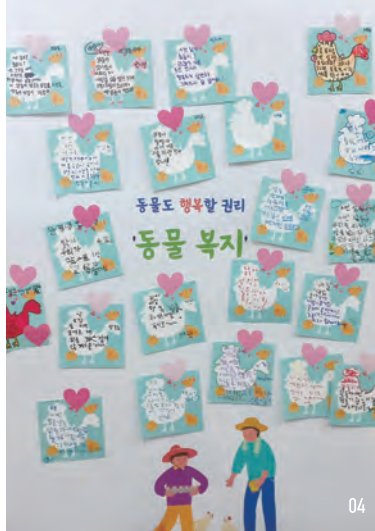
2026년 1월 국회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독서 국가' 출범을 선언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생성형 AI가 빠르게 지식을 대체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은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이다. 더 깊이 읽고, 쓰고, 토론하는 경험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인천도림초등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고, 학교 전체에 '책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독서·글쓰기 프로그램

[생각을 쓰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아침

매월 초, 중앙 현관에 위치한 도서관 입구에는 커다란 질문 하나가 게시된다. 사서교사는 해당 질문과 관련된 도서와 잡지 기사 등 다양한 글감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 이 전시 공간을 방문하여 제시된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 01 그림책독서토론
- 02 생각을 쓰다
- 03 디지털매체 활용
- 04 독서토론
- 05 릴레이낭독
- 06 릴레이낭독 영상 QR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본다. 이 활동은 짧은 글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책 독서토론] 질문이 있는 도서관 수업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도서관 활용 수업 중 가장 호응이 높은 활동은 '그림책 독서토론'이다. 그림책은 1~2차시 이내로 독서토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교구이다. 읽기 전 활동으로 '책표지 까바놀이'를 하고 질문하기와 친해진 뒤 교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다. 읽는 중에도 교사는 '왜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확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토론-토의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쓰기로 마무리한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매체 활용 프로그램

[온라인정보원 활용] 디지털 문해력으로 넓히는 세계관

문해력은 종이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된 '세계 여행 리플렛 만들기' 프로젝트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학생들은 도서관의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지리 온라인 정보원을 검색하고,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수업도 진행된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나만의 여행 가이드를 제작함으로써 정보 활용 능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 문화

[릴레이 낭독] 목소리로 전하는 독서의 즐거움

2023년 인천도림초등학교는 EBS 다큐멘터리 '책맹인류' -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아이들'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낭독의 효과를 증명했다. 이를 계기로 낭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낭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공유한다. 화면 속 선생님이나 친구, 가족의 목소리로 듣는 책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친숙함을 더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독서, AI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열쇠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이다.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한 질문하기,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정보 구성하기, 그리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낭독 활동까지. 본교의 이러한 시도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게임이 넘치고,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거짓 자료들이 생성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본교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되, 그 기술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책을 읽고, 질문하고, 쓰는 일상의 반복이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것이라 믿는다.











♡ Q ▾

.....
2025학년도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



♡ Q ▾

.....
2026 동계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



♡ Q ▾

.....
제48회 인천여고부설방송통신고 졸업식 ☆



♡ Q ▾

.....
2026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



♡ Q ▾

.....
2026 초등 신규 임용 교사 직무연수 ☆



♡ Q ▾

.....
2026 수도권 주요대학 간담회 ☆



♡ Q ▾

.....
I-RISE With-i 페스티벌 ☆



♡ Q ▾

.....
남수단교육부장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방문 ☆



♡ Q ▾

.....
읽건쓰 활동 우수 유치원 방문 ☆



♡ Q ▾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현장간담회 ☆



♡ Q ▾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현장간담회 ☆

아직 모르시나요?
한발 빠른
인천교육소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N blog



blog.naver.com/icehongbo

YouTube



@ice-edu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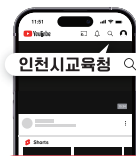
인천교육

인천의 교육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는 방법!



STEP 01

유튜브 실행



STEP 02

인천시교육청 검색



STEP 03

채널 구독하기





 Google Play



 App Store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보이스아이는 종이 인쇄물에 인쇄된 코드정보(바코드)를 이용하여 인쇄물 정보를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용 어플입니다. 구글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